

기술, 산업재산권 있으면 1억원 까지 대출보증

기술자격이나 산업재산권 등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제공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정한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특허권·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창업후 1년 이내와 예비창업자들이다. 지원제도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 기능분야를 지원하는 '기술·자격 창업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은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를 지원하는 '생계형 창업보증제도'를 통해 해당자를 지원하게 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고 1억원로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보증은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암백신 특허출원 국내업체 전무

암 치료백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제약업체는 이에 대한 특허출원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세계의 암 치료백신 특허출원은 총 77건이며 이 가운데 미국이 25건으로 가

장 많고 유럽과 특허협력조약은 각각 17건, 한국 11건, 일본 7건이 출원됐으며 최근 출원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11건은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과 미국의 코릭사가 각각 3건인 것을 비롯, 모두 외국업체가 출원한 것이며 국내 제약업체는 암 치료백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전혀 없었다.

세계적으로 항암 의약품으로 정식 등록된 제품은 없으나 항암효과를 지닌 항암제 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7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6종의 백신은 임상 3상 실험이 진행 중이고 30여 종은 임상 1~2상 실험이 진행 중이다.

특허청 신진균 약품화학과장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면역학의 연구성과와 인간 게놈프로젝트 완성으로 밝혀진 유전정보를 토대로 멀지 않아 암치료 방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제약업체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암 치료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라이코스등 매장 상호로 사용금지

인터넷업체들이 잇따라 오프라인 브랜딩 마케팅에 뛰어 들고 있다. 인터넷에서 인기있거나 유명한 상표를 실제 매장에 적용하는 이 마케팅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상호나 상표를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두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무료이용은 물론 친절한 사용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장 활기있게 움직이는 곳은 라이코스코리아. 이 업체는 서울 강남역근처 사옥 지하에 튜브뮤직과 제휴를 맺고 "라이코스뮤직"이라는 음반점을

운영한다. 벌써 1년이 넘게 운영되는 이곳은 CD 음반, 서적 판매와 더불어 12대의 PC를 설치해 무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 업체는 지앤아이엔터프라이즈와 손잡고 “라이코스스테이션TIC”라는 PC방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PC방 시설에 DVD영화관람이 가능한 DVD존까지 갖춘 이곳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 라이코스코리아사이트가 나타나게 특징. 라이코스측은 이 같은PC방을 서울 뿐만 아니라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NHN(옛 네이버)도 자회사인 미디어랩과 함께 네이버 이름과 상징을 이용한 PC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선릉역, 방배동, 대학로 등 서울에만 약 50개가 운영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곳도 홍보효과를 노려 초기화면에 네이버 사이트를 띄워놓았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즉석음식점인 맥도널드와 제휴를 맺고 “맥도널드MSN존”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몰과 신촌에 설치된 맥도널드 MSN존은 매장 한 칸에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가설치돼 있다.

도우미까지 배치돼 초보자들의 경우 이용방법을 안내받을수 있다. 한국 MS는 MSN존을 확대하기 위해 커피판매점인 스타벅스와도 접촉 중이다.

버거킹과 손잡고 서울 테헤란로, 강남역 등에 ‘버거킹야후존’을운영중인 야후코리아는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어나자 최근 오프라인 브랜딩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풀스탑이라는 업체와 손잡고 가방, 셔츠 등을 제작하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야후카페를 설치하는 게 그 내용. 또 야후상호가 붙은 PC방도 준비중이다.

이밖에 프리첼이 계열사인 인디첼을 통해 제품

군에 따라 별도의 상표를붙이는 독특한 방식의 오프라인 브랜딩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시계, 가방 등을 생산할 제조업체를 선정한 상태에서 조만간 프리첼 이름을 딴 제품들을 볼수 있을 전망이다.

인터넷 상표를 이용한 매장들이 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야후나네이버이름을 딴 자동차 판매점과 유흥업소처럼 허락을 받지 않고 상호를사용하는 매장 등이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다.

야후관계자는 “단란주점의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최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LG투신운용, 금융상품 첫 “특허권” 신청

LG투신운용이 금융상품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 상품판매권을 투신업계 최초로 신청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새 상품은 경제지표를 활용한 펀드의 일종으로, 투신협회는 다음주중 상품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최고 6개월)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었다.

LG투신운용은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가 등락의 정도와 고객들의 위험감수 정도를 결합해 돈을 굴리는 맞춤형 펀드인 LG매크로시스템 혼합펀드를 투신업계 최초로 개발, 배타적 상품판매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가지수를 올리는 방향의 3가지 종

은 경제상황과, 내리는 방향의 4가지 나쁜 경제 상황을 설정한 뒤 그 강도에 따라 주가지수선물과 단기 유동성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도록 고안됐다.

LG투신운용 강용선 과장은 “주가지수 움직임과 밀접한 수출실적,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경기 지표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과거 10년간 거슬러 시물레이션해 만든 독창적 상품”이라고 설명

했다.

이에 대해 투신험회 이갑수 전무는 “상품의 독창성 여부를 엄밀히 따져 심사할 방침”이라며 “외국의 유사한 상품 등을 모방해 독점권을 얻어 다른 경쟁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발특2002/3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이 되려면...

